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http://www.mke.go.kr
'10년 12월 1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계항공시스템과 나기용 과장, 박석주 사무관(2110-4819), 신성찬 사무관(5625)		

동반성장을 위해 기계산업 대기업 팔 걷어붙여

– 「기계산업 동반성장 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MOU 체결 –

– 기계산업 2·3차 협력업체에 특화된 동반성장 프로그램 구성·운영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0.12.1(수) 기계산업 주요 대기업 및 협력업체 CEO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10.9.29VIP 주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수립·발표(기재부, 지경부, 공정위, 중기청)

○ **"기계산업 동반성장 진흥재단 설립 협약식"을 개최**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기계산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 주요 참석자 : 조석 성장동력실장, 두산중공업 정지택 부회장(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겸), 현대중공업 유승남 부사장, 두산인프라코어 김용성 사장, STX엔진 정동학 사장 등 30여개社 대표

□ 본 협약식에서 기계산업 **4대 대기업은 매년 20억원을 출자*하여 「기계산업 동반성장 진흥재단**(이하 "재단")**」을 설립·운영**키로 했다.

* 두산중공업·현대중공업이 각각 6억원, 두산인프라코어·STX엔진이 각각 4억원

○ 그간, **기계산업의 주요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 금융지원, 인력양성, 공정거래 확산 등

- 대부분 **1차 협력업체에 집중**되어,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고, **실효성이 떨어져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도 많았다.

○ 재단은 기계가공설비 정밀도 향상, 기계산업 맞춤형 컨설팅, 전문인력 등 **기계산업에 종사하는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 다른 재단과 달리, **매년 출연하는 자금전액이** 순수하게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활용**되어, **최소 400억원 이상**(이자율 5% 고려시)**을 일시에 출연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로 운영된다.

○ 재단은 기존에 **수직계열 업체 중심으로 추진되던 동반성장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이한 업종·업체간 동반성장으로 활성화**되도록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 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실천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재단설립을 위한 **준비사무국을 구성, ´11년 상반기 중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며,

- 재단 운영으로 **기계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기술력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대·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정부와 업체는 산학연 T/F를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기계산업 실행계획"**을 수립·발표하여 **기계산업 동반성장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주요 대기업**은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2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적용범위를 넓히는 등 업체주도의 **동반성장 추진에 대한 실천의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기계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11년부터 다양한 정책과제를 지원**한다.

- **R&D 지원**의 경우, 해외 수출이 유망한 **중소·중견 Top Brand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참여에 가산점을 부여**

- **국가별·업종별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 「유휴 기계설비 수출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

□ **지식경제부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축사를 통해,**

○ 기계산업 맞춤형 동반성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업체의 자발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 **협력업체 역시, 동반성장의 객체에서 주체로 의식을 전환**하여 **양방향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참고 >

1. 「기계산업 동반성장 진흥재단」 협약식 개요
2. 재단 설립/운영 방안
3. 협약서 내용
4.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기계산업 실행계획"

참고 1 「기계산업 동반성장 진흥재단」 설립 협약식 개요

□ 행사개요

○ **일시/ 장소**: ´10.12.1(수) 11:00～13:00 / 메리어트호텔(7층, Classic 7)

○ **참석대상**: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주재), 한국기계산업진흥회(회장), 기계산업 대기업* 및 주요 협력업체 CEO(총30여명 규모)

*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STX엔진

○ **행사목적**: "기계산업 동반성장 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MOU 체결** 및 **동반성장 기계산업 실행계획 발표**

□ 세부 시간계획

시 간	소요시간	진행내용	비 고
~ 10:50		참석자 등록	
10:50～10:52	(2분)	개회사	사회자
10:52～10:55	(3분)	내빈소개	사회자
10:55～11:00	(5분)	인사말씀	기계산업진흥회 회장
11:00～11:05	**(5분)**	**축 사**	**지경부 성장동력실장**
11:05～11:15	(10분)	MOU 체결 및 기념촬영	기계산업진흥회 및 4개 대기업
11:15～11:25	(10분)	"기계산업 동반성장 진흥재단" 설립/운영방안 발표	기계산업진흥회
11:25～11:35	(10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기계산업 실행계획 발표	지경부 기계항공시스템과장
11:35～11:55	(80분)	건배제의 및 오찬	
12:55～13:00	(5분)	폐 회	사회자

□ 특이사항

○ "기계산업 동반성장 진흥재단"은 **4대 대기업이 매년 출연하는 자금 전액을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수 백억원 이상의 재원을 출연하여 재단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

* 두산중공업·현대중공업 각 6억원/년, 두산인프라코어·STX엔진 각 4억원/년

참고 2 **재단 설립/운영 방안**

1. 추진경과

○ ´10. 3월 VIP주재 5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 범부처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업종별 「상생협력지원재단(가칭)」 설립 확대 유도(기계·전자 분야 ´11년 시범도입)

○ ´10. 4월 지경부 중견기업 육성전략(일반기계) 후속조치회의

◈ 상생협력 차원의 **협력업체 인력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확산**
⇒ 업종별 **「상생협력지원재단**(가칭)」 설립확대 유도, 협력업체 인력 대상 **교육, 기술지도 등 소요경비 지원** 및 **세제혜택·포상** 등 유인 제공

○ ´10. 5~10월 재단설립 설명회(5.27) 및 임원회의 개최

○ ´10.11월 재단설립을 위한 기계산업 4개사 실무자 워크샵

2. 「기계산업 동반성장 진흥재단」 설립방안

□ **(설립개요)** 「기계산업 동반성장 진흥재단」 설립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Win-Win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출연규모)** 기계 4대 대기업에서 매년 총 20억규모 출연*하되, 추후 참여기업 확대 추진('13년 재조정)

* 출연금액 : 현중·두중 각 6억, 두산인프라·STX엔진 각 4억

○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재단 출연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시까지 세액공제분 7%를 감액**하여 출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신설 적용에 따라 '13년까지 출연금의 7% 세액공제

□ **(지원 프로그램)** 대기업 중심의 기존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은 추진하되, **대·중소기업 상호 Win-Win 할 수 있도록 기계업종에 특화된 공통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

① **(기계가공설비 정밀도 향상)** 분야별 전문가로 **현장진단을 실시**하여 **2·3차 협력업체의 취약점인 기계정밀도 향상**을 위해 **프로세스의 무상업그레이드와 부품 지원**

② **(맞춤형 컨설팅)**

- **(수출마케팅)** 수출유망품목 생산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타당성 평가, 마케팅전략수립 및 해외시장동향조사** 등을 지원
- **(기술진단)** 가공설비 및 작업장 레이아웃, 품질개선, 공정개선 등의 **최적화를 도출하기 위해 1~3차 협력업체를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 **(특허지원)** 협력업체의 지적재산권 창출을 위하여 선행기술조사, 특허기술동향조사 및 산업재산권 출원 등을 **특허청과 연계하여 지원**

③ **(전문인력양성)** 대학·전문기관 등에 **장비를 제공**하고 협력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교육프로그램을 지원** 등

<프로그램 확정 및 지원절차>

①기계산업동반성장 재단에 출연	⇨	②동반성장 프로그램 발굴 협의	⇨	③프로그램내용 확정
대기업		대기업↔재단		대기업↔재단
④지원대상 협력사 및 중소기업 선정	⇨	⑤사업위탁	⇨	⑥협력사 및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 재단 등		재단↔위탁기관		재단

□ **(준비사무국구성)** 기진회 파견 직원과 최소한의 사무국직원을 채용하여 재단출범 준비

○ **(주요업무)** 재단출범과 관련한 행정업무와 주요사업 검토 등

○ **(채용시기/보수)** MOU체결 이후 채용하고, 기진회 예비비로 보수를 지급하되 재단설립후 사후 정산 조치

○ **(사무국 구성·운영주체)** 출연 당사자인 기업과 기진회 협의

3. 향후 주요 일정

○ ‘10.12월 재단설립 준비사무국 구성·운영

○ ‘11.上 창립총회, 재단 설립 완료

○ ‘11. 7월부터 재단업무 수행

참고 3 **협약서 내용**

「기계산업 동반성장진흥재단」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양해각서

두산중공업(주), 현대중공업(주), 두산인프라코어(주), STX엔진(주) (이하 '출연 대기업'이라 한다) 및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우리나라 기계산업 분야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산업 동반성장진흥재단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기계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두산중공업(주) 6억원, 현대중공업(주) 6억원, 두산인프라코어(주) 4억원, STX엔진(주) 4억원을 매년 기계산업 동반성장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한다.

제2조 재단은 출연 대기업과 협력기업, 기계산업 관련기업의 동반성장에 필요한 특화사업 발굴과 사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제3조 출연 대기업 및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재단의 성공적인 출범과 출연기업 확대에 노력하고, 협력업체와 기계류 관련기업의 지속가능 동반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출연 대기업과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협의를 통하여 방향과 기준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다.

제5조 이 양해각서는 당사자 서명 날인 된 순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고,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0년 12월 1일

참고 4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기계산업 실행계획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기계산업 실행계획

2010. 12

기 계 산 업

동 반 성 장 대 책 반

목 차

Ⅰ. 추진 배경 ····· 1

1. 동반성장 기계산업 실행계획 수립 배경 ····· 1

2. 최근 기계산업 동향 ····· 2

Ⅱ. 그간의 추진실적 및 평가 ····· 5

Ⅲ. 기계산업 동반성장 실행계획 ····· 7

1.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노력 확대 ····· 7

2. 업체주도: 대기업 중심으로 2·3차 협력업체 지원체계 마련 ··· 11

3. 공정거래 인식확대 및 홍보 ····· 12

4. 정부지원: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기계산업 성장기반 마련 ·· 12

Ⅰ. 추진 배경

1. 동반성장 기계산업 실행계획 수립 배경

□ 관계부처 합동,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수립

* VIP 주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수립·발표(기재부, 지경부, 공정위, 중기청)

○ **(필요성)** 융·복합 추세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경제 향상,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동반성장의 필요성 대두**

- 인식전환으로 **대·중소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정부는 협력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조성** 필요

○ **(기업)** 동반성장의 주체로서 **대기업이 동반성장을 선도**하고, **중소기업은 역량을 갖춘 파트너 역할** 수행

○ **(정부)** 공정거래 질서 확립,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등 **정책과제 발굴·지원**

○ **(추진·점검체계 구축)**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부는 점검시스템 마련**

□ 기계산업에 특화된 동반성장 실행계획 수립 필요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조치로 업종별 추진전략 수립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全산업을 대상**으로 수립되어, **업체의 인식전환과 공정거래 확산 및 경영여건 개선 등에 중점**

○ 산업별로 **상이한 수급구조, 동반성장 수요를 반영**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특화된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더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계산업에 특화된 실행계획을 수립**

2. 최근 기계산업 동향

□ **세계 기계산업 동향**: 신흥시장의 확대 및 High-Tech 시장의 진보

○ **(신흥시장의 확대)** 선진시장 비중은 점차 축소되는 반면 **신흥시장**(BRICs, ASEAN, Post-EU, 중동) 비중은 **2020년 51.6%까지 확대**될 전망*

* 향후 '20년까지 신흥시장은 연평균 8% 성장이 예상되어, 세계 일반기계 시장 성장율(4%)의 2배, 선진시장 성장율(1.3%)의 6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Middle Market*, Volume Zone**이 기계산업의 target 시장으로 등장**

* Middle Market: 중산층 소비자가 주요 수요자인 시장. 중급품질에 적당한 가격의 제품이 경쟁력을 확보

** Volume Zone: 세대당 가처분소득이 5.000~35.000달러에 이르는 아시아 중산층 시장으로 '08년말 기준 8억8,000만명 규모('09.7월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백서")

- **중국이 기계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하면서, **신흥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던 시장을 중국이 잠식***하는 형태

* '00년→'08년 한·중·일 기계시장 점유율(신흥시장/ASEAN):
(韓)2.3/3.3→3.0/3.7, (中)2.0/3.0→9.9/13.2, (日)20.3/34.7→11.8/23.3

< 주요국 세계 기계시장 점유율 및 순위 >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미국
점유율(순위)	'00년	1.7 (15)	1.9 (13)	14.0 (3)	15.0 (2)	18.7 (1)
	'09년	2.6 (9)	8.9 (3)	8.4 (4)	16.6 (1)	11.4 (2)

○ **(첨단시장 투자확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산업엔지니어링, 하이테크 장비 등 **첨단 기계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 지속 확대**

* OECD 및 EU 회원국 산업별 R&D 투자 증가율('05~'09, %): **산업엔지니어링 28%, 하이테크장비 20%**, 우주항공 18%, 전기 10%, 자동차·부품 8%

- 대표적인 **High-Tech,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LCD, LED 및 태양광 장비산업을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이 독식**

* '08년 국가별 글로벌 Top 10 업체수: (반도체장비) 미국 4, 일본 4, 유럽 2, (LCD장비) 일본 9, 미국 1, (태양전지 장비) 유럽 8, 미국 1, 일본 1

□ 국내 기계산업 동향

○ **(수출동향)** 2010년 1~9월 중 **기계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회복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3.9% 증가한 259억불**을 달성

* 全산업(억불,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출(3,386, 30.5), 수입(3,094, 34.4), 수지(292)
* 일반기계(억불,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출(259, 33.9), 수입(210, 21.9), 수지(49)

- 하지만 **´00년~´08년사이 우리 기계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

* 한국의 세계 기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01~´04년간 매해 0.1%P이상 증가하였으나, ´05~´08년간 평균 0.05%P 증가에 그침

○ **(매출동향) 중소·중견기업이 기계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소기업은 경기회복 효과가 매우 낮음**

< ´10.1/4분기 산업별·규모별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증가율 >

	전체평균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기업
제조업	21.5	22.2	18.7	△30.4
기계	12.4	4.8	32.9	△44.4
전자	31.4	33.2	20.7	△67.1

- **(대기업) 대기업임에도 가격경쟁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회복세를 보이나 **제조업 대기업 평균 및 기계산업 전체 평균에 미달**

* 기계산업 대기업 자체가 전자·자동차·조선 등 他수요기업의 대기업에 납품하는 구조

- **(중소·중견기업)** 자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출액 증가가 기계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하면서 **기계산업 회복세를 견인**

* 다양한 업종 및 업체와 거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협상력 보유

- **(소기업)** 특별한 자체기술 없이 **단순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최하도급 업체**가 대분이며, **경기회복 효과가 미미**

* 상위 협력업체의 요구원가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물량을 他업체에게 빼앗길 우려

◈ 기계산업의 성장정체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 **대기업**은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High-Tech 시장을 공략**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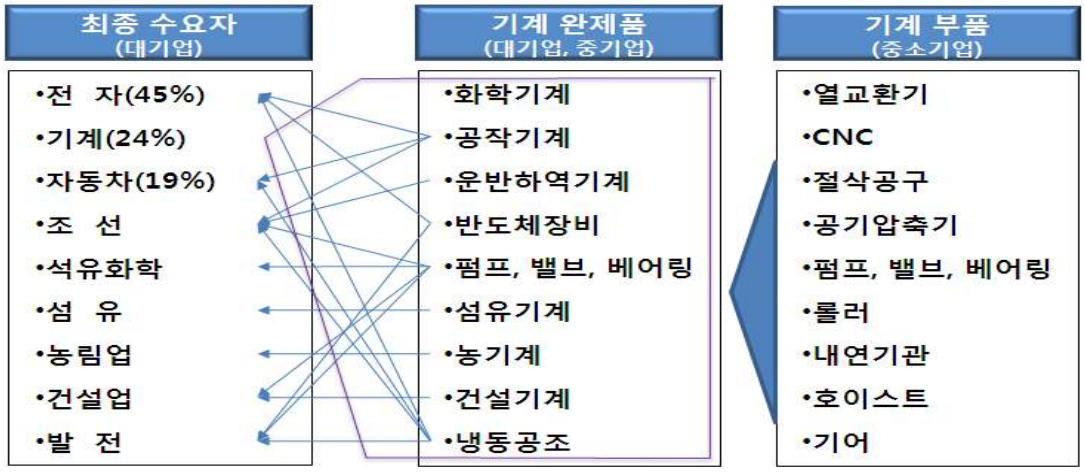
○ **중소·중견기업**은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마케팅에서 우위를 선점하여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 경영여건 개선으로 기계산업을 견인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차 이하 협력업체도 파급효과가 미치도록 조치**할 필요

기계산업 수급구조의 특성

◈ 기계산업의 **수급구조는 기계 부품**(중기업·소기업) → **기계 완제품**(대기업·중기업) → **최종 수요산업**(대기업)**의 3단계로 구분**

< 기계산업의 수급구조 >



○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주요 산업에 **생산설비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및 가동률 등이 경영성과를 좌우**

* 국내 제조업내 기계 수요(´10.1~5월): 전자 45%, 기계 산업자체 24%, 자동차 19%, 조선 포함 기타운송장비 4%, 기타 9.1%

◈ **기계산업의 기업 규모별 수급구조 특성**

○ **(대기업) 가격결정 권한이 약하며*,** 他산업대비 **경기동향에 둔감**

* 대부분의 기계산업 대기업 자체가 他대기업에게 생산설비 등을 납품

○ **(중소·중견기업)** 他산업대비 **높은 가격협상력 및 기술경쟁력**

* 기계산업 대기업 외에 다양한 업종 및 업체와 거래하기 때문에 수직계열화 되어있지 않아 모기업 의존도가 낮고, 높은 가격협상력을 보유

○ **(소기업)** 산업구조의 특성상 **원가절감 압박 등으로 성장이 어려움**

* 단순 부품생산·납품으로 대체 가능한 업체가 다수 존재(완전경쟁시장에 근접)하며, 원가절감 및 재료비 상승을 대부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

Ⅱ. 그간의 추진실적 및 평가

□ (**추진실적**) 일반기계산업 주요 대기업은 자사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

○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은 대부분 **1차 협력업체에 제한**

< 대기업 주도로 추진 중인 동반성장 프로그램 >

분야	주요 프로그램
인력교육	· 협력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한 기술 및 직무교육 · 해외벤치마킹 견학 ·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 개방, 상생세미나
공정개선	·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품질·기술 지도 · 노하우 전수 · 공정개선 컨설팅
R&D	·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 · 공동연구개발 · 대기업 우수기술이전 · 기술교류 및 기술연구회 운영
마케팅 지원	· 공동해외진출 · 국내 및 해외전시참가 · 구매상담회참가
금융/장비 지원	· 동반성장펀드 조성 · 네트워크 론 · 상생보증프로그램 · 유휴장비, 사급자재, 목/금형 치구 지원 · 연구개발 설비대여 · 발주물량 사전예고제

□ **(평가 및 문제점) 글로벌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동력의 필수요건**으로 **동반성장 전략의 부재**

○ 일부 대기업과 정부의 추진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의 **전반적인 실효성과 지속성은 부족한 상황**

- 업계에서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아직 남아있고, 이는 **대기업-1차 협력업체간 거래보다 1-2차 업체간 거래에서 더욱 심화**

○ 수급구조 특성에 의해 **다수 업종·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모기업 의존도가 낮고 동반성장 활성화가 어려움**

* 중소 기계업체는 11개이상 모기업과 거래하는 비중이 높고(자동차 18.8%, 기계 27.7%), 대기업과만 거래하는 비중은 낮음(자동차 18.6%, 기계 13.4%)

- **동반성장 유인요소가 부족**하고 장기적인 **동반성장관계 형성 필요성에 대한 인지 부족**

* 하나의 기계업체가 다수의 완제품 업체에 납품하는 구조로, 동반성장 효과가 경쟁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식 팽배

- 중소·중견기업이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에 **독자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협력업체의 **관심부족 등으로 참석률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부족**

- **1차 협력업체 중심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적이 저조하며, **실제 수요가 높은 2·3차 협력업체에게는 기회부족**

◈ 동반성장 實수요자인 **2·3차 이하의 협력업체 중심의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 자체적인 기술·마케팅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Ⅲ. 기계산업 동반성장 실행계획

1. 대기업: 협력업체 중심의 수직적 동반성장 활성화

□ 두산중공업주식회사(협력사: 3,000여개사)

○ 社內 전문가로 **"경쟁력 강화 지원단**(50명 규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10.11.16 발대식)

- **지원내용**(7개 분야): 설계개선, 생산기술, 구매분야 등 최적화 지원, 공정 개선 등 생산성 향상 지원

- **ASME, ISO인증 취득지원, 품질지도 및 품질불량율 개선**

○ 상생펀드, 네트워크론, 협력기업 대출 등 **다양한 자금지원 수단의 규모를 확대하여 협력업체 자금 유동성 지원**

* 자금지원규모 확대(억원): (상생펀드)85→205, (네트워크론)1,200→1,350, (협력기업 대출)365→485

○ 인력교육, 커뮤니케이션 강화, 해외시장 동반진출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병행 추진**

< 두산중공업(주) 주요 동반성장 프로그램 >

지원부문	주요내용
경쟁력 공유	· 경쟁력 강화지원단(36名)을 구성하여 설계개선(DTC), 생산기술, LM, 품질개선, 원가절감활동(PSM)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 7개 분야 사내 전문가가 협력사 직접 방문하여 지원 · 품목 및 협력사 분류를 통한 협력사 맞춤형 경쟁력 강화지원 확대 ·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확대(전문 기술/인력 교육) – 현재 3,890명에서 5,528명 확대 추진
Profit Sharing /재무지원	· 상생펀드 현재 85억에서 205억원으로 확대 · 협력사 원자재 사급 희망 품목 지원 확대 · 네트워크론 대출 확대: 현재 1,200억원에서 1,350억으로 대출 확대 · 협력기업 대출 확대: 현재 365억원에서 485억 대출 확대 · 우수협력회사 대상 인센티브 부여 · 원가절감 성과 공유 · 협력사에 대한 복리 후생 강화
커뮤니케이션 강화	· Win-Win Call Center를 운영하여 협력사의 의견을 정취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 해결 · 동반성장 사내/외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사내 56개사, 사외 100개사
기타	·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 채용 박람회 비용 지원 · 협력사에 대한 법률적 애로사항 지원 확대

□ 두산인프라코어(협력사: 450여개사)

○ 社內 전문가로 **"경쟁력 강화 지원단**(50명 규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10.11.16 발대식)

* 지원내용: 경제설계, 3정5S, 품질혁신, 핵심기술요소(용접, 가공, 비파괴 검사) 등

○ **15개사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CP 도입 선포식 지원**('10.12월)

* 1·2차 협력업체간 공정거래 형성으로 1차 협력업체의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위반 위험을 관리하고 2·3차 협력업체에 하도급법 준수 지원 확대

○ 자금지원, 인력교육, 커뮤니케이션 강화, 해외 동반진출, 공정거래 문화 확대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병행 추진**

< 두산인프라코어 주요 동반성장 프로그램 >

지원부문	주요내용
경쟁력 공유	· 사내 전문가로 경쟁력 강화지원단(50名) 구성하여 경제설계(DTC, Design To Cost), 3정5S, Lean,품질혁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 TQM System 구축지원(4개사) · 외자부품 국산화를 위한 시험평가 및 기술 지원 · 3정5S 기반 협력업체 낭비제거활동(도요타의 Lean활동)추진(30개사) · Flexible sourcing(OEM 확대) 제작 지원 · 형치구, 라인 및 설비 지원 등 전략적 투자 확대 · 주요 제관업체에 대한 비파괴검사 기술 및 운영 지원
자금	· 상생펀드 현재 365억에서 확대 및 R&D협력펀드 검토
교육	· 기본적인 직무 교육은 지속 유지: 직무교육(19개), 특화교육(2개), 기술교육(2개), 정부연계 교육(2개) 등 · 추가 교육과정 개설: 품질(SPC, 8D등)교육, EHS 관련 교육 지원, Training Center를 활용한 기능 실습교육 등
협력업체 커뮤니케이션 강화	· 협력업체 Hotline을 설치하여 협력업체의 VOC를 청취하고 해결 · 협력회 및 인적교류를 통해 협력업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도출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 중국 서주 엔진공장에 당사 협력업체 동반진출 지원 검토 中 - 12月 42개사 협력사 대상 현지 방문 예정
공정거래 문화정착	· 협력업체 CP도입 선포식 지원: 1,2차 협력업체간 공정거래 형성으로 양극화 현상 해소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2,3차 협력업체로 확대
기타	· 2010년 경영닥터제 추가 도입(1기 2개사 → 2기 3개사) · 당사 ERP구축과 연계하여 협력업체 IT 시스템 구축 지원

□ **현대중공업(협력사: 2,100여개사)**

○ **동반성장 정책을 2차 협력사 확대**로 1·2차 협력사의 동반자적 인식을 공유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교육(11.25일 213개 협력사 대상)을 수행하여 1·2차 협력사간 동반의식 고취
* (′10.11)「동반성장센터」 개소식 및 「동반성장펀드」 협약체결, (′11.1) 2기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 상생협력펀드*를 활성화하고 "민관 공동기술개발 펀드**" 조성을 검토하는 등 **자금지원 확대**

* 기업은행(동울산지점內) 「현대중공업그룹 협력회사 동반성장센터」를 설치하여 700억원 펀드 이자감면율 확대(2%↓)로 협력회사의 대출 활성화
** 민관 공동기술개발 펀드 조성(대·중소협력재단 주관, 300억원 규모)으로 협력업체의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성공시 수요처 구매

○ 금융지원, 기술품질지도, 교육훈련지원,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협력회사의 실질적인 동반성장 지원

< 현대중공업 주요 동반성장 프로그램 >

지원부문	주요내용
금융지원	· 700억원 상생협력펀드 활성화 및 지원규모/대상(1·2차 협력업체) 확대 · 납품대금 현금지급 확대 및 현금성 결재비율 100% 유지 · 네트워크론 대출지원, 선급금 지급, 사급자재 지원규모 확대 · 경영 및 시설 자금 직접대출, 유휴장비 협력사로 저가매각 지원 · 민관 공동기술개발 펀드 300억 조성 검토 · 우수협력회사 및 인센티브 확대 검토 · 2차 협력사 지원 우수업체 포상 및 인센티브 확대 검토
기술·품질지도	· 협력회사 품질지도 전담 TEAM 운영 및 품질요원 현장방문지도 확대 · 협력사 공동 연구개발, 휴면 특허기술 이전 · 공동 개선활동 성과공유제 활성화
교육·훈련지원	· 협력업체 전산사이버 강좌 개방, 안전 및 보안 교육 확대 · 협력업체 대표이사 교양강좌(월 1회) · 기술교육원 기능 및 기술교육 확대(교육 대상을 1·2차 협력사로 확대 검토) · 인재교육원 직무향상 교육 확대(개선아카데미, 사무직무교육) · 협력사 경영 및 법률진단 컨설팅 검토
경영·기타지원	· 협력사 지원 및 동반성장 전담조직 및 사이버 상담창구 운용 · 협력회사 무료 법률상담 ·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 실천 · 공정·투명 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 협력사 임직원 문화시설 혜택 제공(병원, 호텔, 예술관, 스포츠시설)

□ **STX엔진(협력사: 150여개사)**

○ **"상생협력위원회" 운영 및 동반성장 전담조직**(상생협력팀) **신설**로 동반성장의 추진·확대 체계 구축

- STX그룹 주요 4개사의 주요 협력업체간 **"동반성장 협약식"을 체결**(10.15일, 500여개社)하고 **"동반성장 대토론회" 개최**(10.22~23일, 80여개社)
-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실천서약 준수 모니터링 실시

○ **상생협력펀드 조성 및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를 통해 협력업체의 현금유동성 확보 지원

○ **"품질개선 지원단" 운영**으로 2차 협력체까지 품질등급제를 시행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체적 품질 배양 능력 보강**

< STX엔진 주요 동반성장 프로그램 >

지원부문	주요내용
동반성장 강화 및 공정거래	· 효율적 동반성장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상생협력위원회 운영, 동반성장 전담조직으로 상생협력팀 신설 · 협력사 고충처리센터: STX엔진 상생 Hot-line 운영 · 윤리경영 실천서약 준수 모니터링 실시
금융지원	· 품질/납기관리 우수 협력업체 납품대금 현금지급 확대 (기존 2개社 → 일정 평가기준 도달업체에 적용 확대) · 현금성 결제비율 100%: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중 선택 · 납품대금 현금지급 확대(기존 1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상생협력펀드 자금조성으로 저리대출 지원(STX 500억 + 우리은행 500억) · 협력사 신규사업/품목 투자 시 지분참여 추진 및 확대
기술·교육지원	· 해외 선진기업 산업시찰/ 전시회 공동참여 확대로 신규시장 정보공유 · 협력사 현장사원 OJT교육 지원 : 모기업과의 동반자인식 공유 · 협력사 대상교육 확대(년 중): 방산원가/EMP/품질관련 교육, 실무자 워크샵, 협력업체 간부사원-모기업 교육 문호개방, STX그룹 교육Infra 공유 · 한국해양대 산학연 교육훈련센터 운영지원
사업기회 창출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추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개발비 55% 이내 정부부담) · 원사업자 기술개발 필요품목 설명회(연 2회): 협력사 신규사업기회 창출 · 구조고도화 사업 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 협력사 분담액 50% 지원 · 성과공유제 도입추진: 공정/가공기술 개선지원
품질향상	· 협력사 품질개선 지원단 운영: 품질인증 SYSTEM 도입, 2차 협력업체 품질등급제 시행, 협력업체 자체 품질 개선능력 배양 지원 · 협력사 생산성 향상/ 현장 Up-grade 컨설팅 지원: 컨설팅비용 분담 · SCQM 상시 운영: 품질시스템 향상 지원 (확인 검증 및 지도교육 실시) · 품질관리 개선능력 배양 : 품질교육 실시

2. 업체주도: 기계산업 업종간 수평 협력 활성화

□ (**문제점**) 대기업이 추진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은 **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에만 적용**

○ **수직적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제품생산 및 납품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궁극적으로 **단가절감·생산력 향상에 집중되는 경향**

○ 협력업체의 **근본적·질적인 기술력 향상,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수직적으로도 1차 협력업체에 집중

◈ 수직적인 거래관계를 벗어나, **기계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 동반성장의 實수요자인 **기계산업 전반의 2차 이하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동반성장 프로그램 도입 필요

□ (**추진대책**) **"기계업종 동반성장 진흥재단" 설립·운영**을 중심으로 기계산업에 적합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추진

○ (**재단설립**) 기계업종의 4대 대기업* 출연을 중심으로 **동반성장 진흥재단을 설치하여 기계업종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운영**

*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STX엔진

- '10.12월 설치방안 확정 및 향후 참여기업 확대 추진

* '10.8~10월 설치방안 협의 → '10.12월 설치방안 수립 → '11년 설치

○ (**프로그램 구성방향**) 동반성장의 실 수요자인 **2·3차 협력업체를 主대상으로** 한, **공통분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추진

* 컨설팅 프로그램, 기계가공설비 정밀도향상 프로그램,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

- 재단에 출연한 업체가 희망하는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 프로그램 적용업체로 우선 고려

□ (**기대효과**) 기존 경쟁자적 인식*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기계산업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하나의 기계업체가 다수의 완제품 업체에 납품하는 구조로, 동반성장 효과가 경쟁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식 팽배

3. 공정거래 인식 확대 및 홍보

□ 업체 자체적으로 공정거래 확산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

○ 대기업 주도로, **1 ↔ 2·3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추진**

* 포스코(8.18일), 현대·기아자동차(9.1일), STX엔진(10.15일) 체결 사례

○ 컨설팅 지원 등 1차 협력업체의 CP(Compliance Program) 도입 지원

□ 정부차원의 공정거래 유도

○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수행실적이 우수한 1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정부포상 수여 추진**

* 2·3차 협력업체의 추천으로 실적을 평가

○ 동반성장 **우수사례 및 Role-Model***을 발굴하고, **공공기관**(정부 및 관련 기관 등) **홈페이지, 책자 등을 통해 홍보**

* 동반성장은 업체의 일방적인 희생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해, 대·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상승시킨 예시를 발굴

4. 정부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기계산업 성장기만 마련

□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R&D 지원

○ **"생산시스템" 구조개편**으로 **중소·중견 Top Brand***를 발굴·지원

* 예시: (주)썬스타,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자수기 시장을 석권하여 시장점유율 1위(중국, 인도, 동남아, 중동, 유럽, 미주 등 세계 각국에 진출)

- 신흥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별 Needs에 맞춘 Top Brand 발굴**로 **기계산업의 인지도 향상 및 재도약 기회마련**

* 향후 신흥시장(BRICs, ASEAN, Post-EU, 중동)은 연평균 8%이상의 성장이 예상되어, 2020년 세계 기계 시장의 5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

○ R&D 지원대상 선정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목표치에 가산점을 부여**

□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마케팅 활동 지원

○ 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국가별·업종별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 예시: (브라질/인도네시아) 건설·농기계, (인도/베트남) 공작·금형기계, (중국, 인도, 터키 등) 섬유기계

- 주요 지역별 **수출유망 품목 발굴 및 특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 (′11년 상반기 연구용역 추진)

- 대·중소기업의 역할분담을 통한 **패키지형 해외 동반진출 모델 작성·제시**

* **사례)** 두산인프라코어(주)-(주)다사, **협업을 통한 라인업 확보 및 공동마케팅**
  - 중국시장 수요증가에 따라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소형머시닝센터 개발
  - (주)다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주)의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부품의 저가구입·공급 등)을 통해 제품개발 성공
  - 생산된 제품은 두산인프라코어(주) Brand로 해외수출(OEM)

○ **「유휴 기계설비 수출유통단지」 조성**으로 대표적 Market Place를 형성하고 **국내외 Buyer 유치 및 해외 직접 수출창구 형성** 지원

* ′10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수요 제출

○ 주요 유망 전시회(한국기계전, 서울공작기계전시회 등)를 **Global Top 종합전시회로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 홍보의 場으로 활용**

□ **IT 융합 제조시스템 확대**

○ 우수한 국내 **IT인프라**와 **신개념 제조서비스**를 융합하여 **한국형 제조혁신 모델로의 확대 발전**

* 금형업체인 (주)삼진엘앤디의 경우 i-Manufacturing 협업시스템 활용으로 납기 42.9% 단축, 업무 효율성 75% 상승, 원가 8.1% 절감

○ ***i*-Manufacturing 사업**의 확대로 **협력업체간 협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맞춤형 제조서비스 구축 지원**

* 협업중심 스타 기업 50개 발굴 및 10,000개 이상의 제조업체로 확대(2015년)
* 사업비 단계적 확대 : 50억원(2010년) → 100억원(2015년)

- 기업간 **가치사슬의 협업화 및 전주기적 서비스 지원**으로 **납기 단축,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달성

* 이익률 5% 증가시 제조업 30조원, 부품산업 6.4조원의 부가 이익 기대